



### 2008년도 제 2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개최

#### 업무보고 및 주요안건 추진



본회는 지난 5월 14일 본회 회의실에서 2008년도 제2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2007년도 육계자조금사업 정산결과 보고와 함께, 향후 자조금 운용계획, 공동행위 인가신청, 농림수산물품부 정책제안 검토결과 등에 대해 보고했다.

또 시 여파로 업계전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 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사업비를 조성기로 했다. 세부계획으로는 회원사와 지역농협, 대한양계협회 지부 등과 연계하여 시식행사 등을 전개하고, 닭고기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포스터 등을 제작해 배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 홈에버 항의 방문

#### 닭고기 판매 재개 강력 촉구

본회는 지난 5월 8일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



회 등과 함께 시흥동에 위치한 홈에버 본사를 방문해 생닭판매 중지해 대해 강력하게 항의 했다.

홈에버는 서울에서 고병원성 시가 발생하자 지난 5월 7일부터 예방 차원에서 생닭 판매를 중단해 전국 35개 매장에서 생닭 제품을 철수했다. 또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홈에버의 생닭 판매 중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 자리에서 본회 서성배 회장은 “닭고기는 SI 감염과 무관한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닭고기 판매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고 시에 감염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로 인해 유통매장에서 닭고기 판매를 중단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가금관련 농가들은 먹지 못하는 식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된것 같다.”라며 “홈에버의 이번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홈에버 관계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판매를 재개를 통해서 닭고기 소비촉진에 노력 하겠다.”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 SI관련 전국 가금사육농가 항의집회

###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마련 촉구



본회는 지난 5월 16일 서울 녹번동의 질병관리본부 정문 앞에서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계란유통협회, 토종닭협회의 회원들 일천 여명과 함께 대규모 항의집회를 가졌다.

본회와 참석자들은 SI 발병으로 가금업계의 생존권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본부 등이 시민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장해 양계산물의 소비가 위축되는 등 산업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금관련단체 협회장들은 이날 질병관리본부장과의 면담을 통해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주요언론에 ‘유통되는 가금류는 안전하다.’라는 내용의 홍보 등을 요구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장은 가금관련업계에 공식사과와 함께 “가금관련단체들과 면담을 통해 국내산 가금 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홍보활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SI관련협의회 구성을 통해 TV 및 주요 일간지에 대해서도 홍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집회에는 하림, 마니커, 동우, 체리부로 등 각 회원사와 농가들이 대거 참석해 SI 극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 신세계 이마트 시식행사 참석

### 소비촉진 행사에 동참



본회는 지난 5월 26일 신세계 이마트 서울 은평점에서 열린 ‘닭고기 소비촉진 무료시식회’에 참석했다.

신세계 이마트가 조류인플루엔자(SI) 확산여파로 매출이 전년에 비해 80% 가까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업계와 양계농가들을 돕기 위해 무료 시식회 및 할인판매 등 닭고기 소비촉진 캠페인에 나선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닭 1000여 마리를 튀김과 바비큐로 요리해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시식회에는 이마트 이경상 대표와 본회 서성배 회장, (주)하림 김홍국 회장, (주)마니커 한형석 회장 등이 참가

해 소비자들에게 닭고기의 안전성을 직접 설명했다.

본회 서성배 회장은 “AI에 감염된 닭은 시중에 절대 유통되지 않으며 지금은 활발한 닭고기 소비를 통해 관련업계와 양계농가에 힘을 보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해준 신세계 이마트 임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마트는 이날 은평점 직원식당 메뉴를 삼계탕으로 정하는 등 임직원들이 닭고기 소비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6월 4일까지 전국 113개 점포에서 백숙용 생닭을 2,780원에, 닭볶음탕용 생닭을 2,980원에 판매하는 등 최대 40% 할인 판매 행사를 시작했다.

이경상 이마트 대표는 “AI에 감염된 닭은 즉시 죽을 뿐 아니라 털이 뽑히지 않아 도축 자체가 안 되므로 시중에 유통되는 생닭은 안전하다.”며 “행사 기간 중 닭고기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홈플러스도 6월 4일까지 전국 67개 점포에서 ‘친환경 닭 기획전’을 열고, 롯데마트는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전국 56개 점포에서 생닭 1마리(중)와 볶음탕용 닭고기(590g)를 정사가보다 30% 저렴한 2,680원에 판매한다.

## AI 비상 상황근무체제 유지

### AI 관련업무 신속 정확한 처리

본회는 조류인플루엔자(AI) 비상근무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또한 AI가 전국에 걸쳐 확대됨에 따라 피해가 날

로 커지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회원사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 학검역원 등과 계속해서 긴밀한 협력 체계 유지를 통해 조속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주요업체의 주문 감소에 대한 동향 파악을 보고해 회원사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있으며 AI 발생으로 인한 회원사들의 현실적이고 투명한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AI 방역대책 협의를 위한 일일 대책회의 참석

### 피해보상 대책마련 촉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난 4월 1일 전북 김제 지역의 AI 발생 확인 이후 발생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계적인 방역대책 추진을 위하여 “AI 방역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AI 발생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난 4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일일 회의를 진행 중에 있다.

본회에서는 매일 5시 AI 일일 대책회의에 참석해 회원사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전달하고, 조치사항을 신속히 회원사에 전달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이고 조속한 피해보상 대책마련을 위해 건의함은 물론,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사들의 노력과 피해 규모 등을 전달하고 있다.

### 제3차 편집위원회 개최

#### AI 극복에 앞장서기로...

본회는 지난 5월 7일 본회 회의실에서 2008년도 제3차 편집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편집위원회에서는 '월간 닭고기' 전월호의 평가와 아울러 6, 7월호 편집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시로 인한 계육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월간 닭고기'의 역할과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시 극복을 위한 업계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



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편집위원과 '월간 닭고기'가 앞장서기로 했다. <img alt="logo" data-bbox="675 418 705 433"/>

#### <농림수산물식품부의 정책제안 검토 결과>

건 명	제안내용(한국계육협회)	농림수산물식품부 검토결과	비고 (향후추진계획)
① 계육가격결정구조개선	• 닭고기가격이 소수일반농가의 수급상황에 따라 급상승하는 생계시세가 아닌 도계육가격으로 결정되도록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	• 일부반영(중장기) - 장기적으로 생산비·가공비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도계육 시세로 전환되어야 함	• 업계의 합리적인 방안 제시 및 협의
② 닭고기가격에 대한 하한가격 예시제 도입	• 하한가격 예시제를 도입하여 생산원가를 보장, 안정된 공급 기반 마련	• 수정반영(2년 이내) - 업계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체계구축이 바람직하며 최대한 검토	"
③ 도축장 자체 검사원 확보	• 도계장에 두도록한 자체 검사원의 배치기준 완화 • 검사원 인건비 보조 및 국가 검사관 배치요망	• 전부반영(2년 이내) - 검사원 배치기준 신축적용토록 개선 - 도계장에 지자체소속 검사관 배치	• 관계법령 마련시 업계 의견 반영
④ 정책자금지원시 농기업 차별화 폐지	• 계열화업체와 같은 농기업도 정책자금지원시의 금리를 농협이나 농업인수준으로 낮추어줄 것	• 수정반영(2008년 이내) - 가족계열화사업, 특장차량지원사업 등에 대해 가능토록 관계부처와 협의	• 계속추진 노력
⑤ 축사등 농업용시설 신축시 취득세·등록세 감면	• 축사 등 농업용시설 신축·이전시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	• 이미반영 - 현재 농·어업인에게 50% 감면	• 당초 100% 감면을 요구
⑥ 도축장 인·허가 승인 강화	•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이 도축장 인·허가권을 직접행사	• 수정반영(2년 이내) - 허가요건 갖출 경우에 인위적 허가제한은 어려우며 도축장에 정책자금지원시 도계라인증설 등은 제외	-
⑦ 농기업의 중소기업 인정	• 농기업은 규모나 외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	• 수정반영(2008년 내) -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가능토록 관계부처와 협의	• 관계부처(청)에 설명 및 협조 요청
⑧ 외국인 근로자 채용	• 외국인 인력채용을 통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으로 인정	• 수정반영(2008년 이내) -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 추진	"
⑨ 항생제 사용 금지 품목 확대	• 인수공통 퀴놀론계 합성항균제 사용 금지 및 수의사 처방제 전면 실시	• 전부반영(2008년 이내) - 2011년 수의사 처방제 시행을 목표로 추진	• 관계법령 개정시 업계 의견 제시
⑩ 육계계열화 지원 정책 확대	• 육계계열화사업체에 대하여도 저리의 사료구매 자금지원 요청	• 일부반영(2008년 이내) - 자체 사료 공장을 가지고 있는 육계계열업체에 지원	• 당초 요구내용과 차이가 있어 별도지원요구(2008. 4. 29)

\* 지난 3월 12일 본회에서 농림수산물식품부에 제출한 정책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